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용민숙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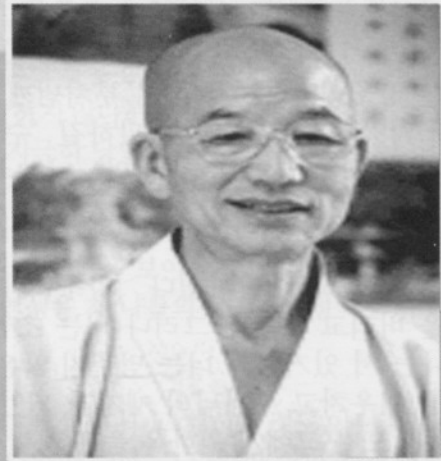
백신에게 듣는다<마흔네번째>

정무스님 초청 송년 열린법회

- 주제 : 正命(정명.웰빙)의 길
- 일시 : 불기2550(2006)년 12월 16일(토) 15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 법당

[정무스님 약력]

- 1931년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출생
- 1958년 전북대학교 졸업,
군산 은적사에서 전강선사를 은사로 출가
- 1968년 영주 포교당 주지
- 1970년 제2교구 중앙종회 의원
- 1971년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 2003년 현재 안성 석남사 주지
- 2003년 경기불교문화원 증명법사



12월 사찰환경 답사

서산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부석사, 간월도

- 일 시 : 2006년 12월 17일(일) 오전 7시 30분
- 출발지 : 경기불교문화원 앞
- 동참금 : 3만원
(중/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11.12월 초



너야말로 멈추어라!

조계종 포교사 권중서



우 리들은 자주 거울을 보게 된다.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마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
 려한다. 오직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중하는 듯하다. 마치 그릇 속에 담긴 음식에는 관심이 없
 고 음식을 담은 그릇에만 관심을 두는 꼴과 같아져 버린다. 나의 목숨을 이어주는 것이 그릇이 아니
 라 음식임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아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인 업에는 관심이 없고
 그 행위에만 집착하여 자기 자신에만 좋은 것과 편한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애써 온지도 모르겠다.
 한해를 마감하며 부처님 당시 살인마였던 앙구리마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코살라국 바라문 출신인 앙구리마라는 스승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으나 이것을 물리친 까닭에
 도리어 그 여인의 간계에 걸려서 살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피를 본 앙구리마라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죽인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다. 부처님께서
 는 그 나라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앙구리마라가 잘 나타나는 마을로 갔다. 부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앙구리마라는 뒤에서 부처님께 접근하려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빨리 걸어도 가까
 워지지 않았다. 그는 소리쳐 말하길 ‘수도하는 사람아 멈추어라.’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
 다. ‘나는 처음부터 멈추지 않았느냐. 너야말로 멈추어라.’ 앙구리마라는 의아해 하며 물었다. ‘당신
 은 이상한 소리를 하시오. 당신은 걸고 있는데 멈추어 있다고 하고 나는 서 있는데 멈추라니 이것이
 어찌 된 말씀이요?’

부처님은 엄숙히 대답하셨다. ‘앙구리마라야 나는 실로 멈추어 있다. 나는 항상 모든 생명에 대해 해
 칠 뜻을 버리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조금도 자재함이 없이 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
 므로 나는 서 있거니와 너는 멈추지 않은 것이 된다.’ 이 말에 감동한 앙구리마라는 그 자리에서 자기
 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후 수행에 열중한 앙구리마라는 어느 날 사위성에 탁
 발하러 갔으나 그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나무와 돌을 마구 던졌다. 그의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깨져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쳐 아무런 저항 없이 곤
 옥을 참아낸 앙구리마라에게 부처님은 칭찬하는 말씀과 이제야 참아야 한다는 이치를 타이르셨던 것
 이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인과응보는 피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이야기이다. 한해를 보내며 내가 살아온 길이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원인에만 매달려 살아오지나
 않았는지? 앙구리마라와 같이 앞뒤를 돌아보지 않아 무모하게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달려오
 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 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너야말로 멈추어라!”를 깊이 새겨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 보자. 사찰에 가면 명부전이 있는데 이 명부전은 살아있는 자가 지난날을 되돌
 아보고 참회하여 다시 태어날 때 지옥의 길로 다시는 들어서지 않게 하기위한 지장보살님의 자비심
 을 보여준 곳으로 시왕생칠경에 보면 “염라대왕 앞에서 죄인들은 머리카락을 잡힌 채 머리를 들어 업
 의 거울을 보니 비로소 전생의 일을 분명히 깨닫네.” 라고 하였다. 염라대왕의 거울이 이 명부전에 있
 으니 살아있는 우리들은 수시로 업의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춰 다음 생에 지옥에 갈 것인지 극락에
 갈 것인지를 미리 점검하자. 또 한해가 가기 전에, 또한 우리들이 매일 들여다 보는 집안의 거울이 나
 의 얼굴과 몸만을 비춰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 내가 한일을 비춰주는 업의 거울로 느낀다면 바라볼
 때 마다 나의 모습이 부처의 얼굴인지 마구니의 얼굴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어지러운 한해
 를 보내며 혹시나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주변에 끼친 잘못이 있으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여 다음생의
 업보로 남지 않도록 내 마음속의 업경을 미리 살펴보자. 한해가 가기 전에. **경기 불교**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 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팔자와 인생...

보현진열스님(감로향사 분향주)

옛말에 '팔자 도망 못한다'고 전한다. 우리네 인생살이가 모두 팔자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생은 처음부터 짜여진 어떤 틀 속에 의해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생의 틀, 이것이 팔자라는 방정식으로서 인생을 설명하려고 한다. 어떤 이들은 무슨 소리냐? 인생에 아무런 틀은 있을 수 없다. 아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어떤 틀이 있다! 글썄요.....? 이렇게 가지가지로 자기 인생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인생은 어떤 방정식 같은 틀을 타고나서 살아갈까? 누구나 한번쯤 해볼만한 의심일 것이다. 만약 그런 의심마저 없이 그저 살아간다면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생은 분명히 어떤 틀이라는 방정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팔자론을 얘기하고자 한다.

대체로 젊을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지만 혁신적이고 기존의 틀을 부정하려는 의지를 보이므로, 인생의 팔자론을 부정하기 쉽다. 이것은 세상을 덜 살았다는 증거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지고 쉽사리 믿지 못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는 식으로 부정적이며 보수적이고 기존의 틀을 인정하고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인생의 팔자론을 긍정하기 쉽다. 이것은 살수록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경험의 산물이다.

젊었을 때의 혁명주의도 늙을수록 수구보수주의로 변모하는 성향은 지극히 당연하다. 모험주의에서 안정주의로 회귀하는 인생의 일반적인 과정의 틀이기 때문이다. 늙어서 혁명론을 주장하는 이는 좀체 있기 힘들다.

이것은 일반적인 나이의 적고 많음에 따른 성향을 보이지만, 민족에 따라 민족적 성향도 있고, 개인에 따라 개인적 성향도 있으며, 또 집단적 성향, 조직적 성향....등 얼마든지 어떤 일관된 성향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형제라도 개인의 성향이 다르고 나름의 인생의 틀을 갖고 살아간다. 한마디로 인생은 제 나름의 틀, 곧 방정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인생의 방정식이란 게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생이란 게 어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너는 이 길을 걸을 것이다!'고 제시된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에 나서 그 나라의 문화 풍속 속에서 배우고 익혀서 살아갈 뿐이다. 다양한 문화, 그 다양한 삶의 틀을 어느 방정식에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동양의 선현들은 하늘의 기운을 흘러보내듯 현묘한 인생방정식을 개발해 냈으니, 그것이 누구나 갖고 나는 생년월일시라는 四柱 八字라는 방정식이다. 생년월일시 가지고 인생의 틀을 읽어내고 해독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다는 철학적 체계다.

이 사주 팔자적 철학 체계도 천 수백년을 거치면서 꾸준히 진화해 왔는데, 경륜과 연구가 거듭할수록 팔자론의 깊이와 적중률이 높아지고 세상살이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을 天命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천명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임무와 이정표다. 그릇이다. 틀이다. 이것을 알면 자기 分數를 아는 것이요, 모르면 자기 분수를 넘어 화를 불러올 수 있다. 知己守分-자기를 알고 분수를 지키라!

이것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다. 경기 불교

부처님 말씀(13)

현명한 이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먼 쾌락만을 뒤쫓지도 않는다. 즐거운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는 전혀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

- 법구경 83 -

Indeed, the virtuous give up all; the virtuous do not talk with sensual desire; when faced with joy or sorrow, the wise do not show elation or depression.

- DHAMMAPADA 83 -

현대트랜즈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FILA 동수원점

대표 : 이명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103호)

TEL : 031)205-4311 H.P : 011-345-6887



법문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면 삼업이 청정하다

성관스님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지만 잊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뜻에서 오늘은 법구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은 내 몸을 다치게 하는 도끼이다.”

우리의 입이 왜 도끼가 되어서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이냐 하면 입에서 나온 말은 대부분 구업을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도 불공을 할 때, 천수경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10가지 참회 대목이 나옵니다. 그중 4가지가 입으로 짓는 죄업으로 망어, 기어, 양설 악구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말로 망령되게 하는 것, 이상한 말로 주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한입으로 두 말하고 다니는 것, 몸쓸 말로 남을 골탕 먹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뉘우치는 일이 참회라 합니다. 오늘 문화원에서는 이 구업은 왜 지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구업을 지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생각해 보고 구업을 짓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구업은 신, 구, 의 삼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삼업을 잘 다스리면 누구나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티벳 불교에서는 이 삼업을 닦는데 일생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티벳에 가서 티벳 스님께 물어보니 스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였습니다. “그저 행동 조심하고, 말조심하고, 생각을 가지런히 하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간단하고 쉬운 것 같으나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승려로 40년을 보내 왔는데 참으로 생각이 가지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삼업의 다스림이 어려운 것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항상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또한 아들을 칭찬하면 아버지가 좋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형제간에도 시기, 질투심이 존재하나 부모의 사랑에는 시기, 질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며느리를 칭찬하면 시어머니가 질투하고 아버지를 칭찬하면 아들이 시기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 질투를 내뿜는 곳이 입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입은 내 몸을 망치는 원인 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법시대가 오면 형제간 믿지 못하고, 부자간, 부부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둘러 보아도 믿을 곳이 없다고 들 한탄 합니다 만 정작 자기 자신부터 남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남이 말을 할 때는 잘 따지면서 자기가 말을 할 때에는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따져보고 말하지 않는 무관심과 자신에 대하여는 관대 합니다. 권리 주장에는 참으로 강하나 그 속의 의무 이행에는 나 몰라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시기 질투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눈만 뜨면 삼업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는 안목을 가지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은 그저 행동조심하고, 말조심하며 생각을 가지런히 하면 됩니다.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연습하면 죄를 짓 않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 미래를 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45년간 살아오신 길을 항상 생각하고 그 뒤만 따라가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맑고 청정한 생명체인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를 버리면 곧 바로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 부처님 되십시오.

경이 불교

10월~11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 (10/1~11/30) 4,456,180원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진철희, 권중서, 염규용, 장명순, 윤광숙, 양재홍, 조권형, 윤영무, 신연자, 장용집, 홍인숙, 이기순, 김영희, 이대곤, 조창윤, 진주범, 정무근, 이상범, 강재수, 김기현, 구광국, 이임성, 김말수, 김준옥, 안영찬, 이영옥, 최정자, 장옥훈, 김영동, 박선현, 김은주, 이태순, 송호윤, 김용필, 진상범, 민춘홍, 조명숙, 이남덕, 김순옥, 김준호, 양준영, 송경주, 최숙련, 박진배, 조정자, 김경수, 김정숙, 이병일, 조병희, 배민한, 심화식, 진기홍, 조남종, 정현숙, 차용희, 이상남, 정경화, 서의호, 조성남, 함대식, 장영남, 이기원, 어윤식, 이민수, 정재안, 정효진, 신윤식, 박홍근, 안병선, 박상우, 이대병, 김덕희, 주인수, 김지은, 김묘정, 이수교, 김명옥, 김해자, 이사현, 서순덕, 이경원, 배정희, 박정자, 공석남, 서상열, 김재숙, 양희선, 김미정, 이선우, 조복행, 정해영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경력 교육생 모집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기초반)
- 지도강사 - 고철성
- 내용 - 경력의 기초과정 (6개월과정)



사찰답사

강화도 보문사, 적석사, 그리고 새우젓!

포교사/본원이사/감로행 윤광숙

사찰답사를 갈 때는 하루 전

부터 바쁘다. 답사반원 먹거리도 해야 하고 가게 뒷정리도 해야 하고 내 몸이 더 있었으면 할 때가 이런 때다. 어딘가를 떠난다는 설레임이 없다면 하나의 일이 되어 힘들기 그지없을 터이지만 만나면 반갑고, 낯익은 그래서 더 정답고 고마운 답사반 식구들을 생각하면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하여 참으로 행복하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탓인지 차가 밀리지 않아 예정시간보다 훨씬 빨리 외포리 선착장에 도착, 배를 타고 석모도로 향하는데 갈매기의 유희가 우리를 즐겁게 맞아준다. 석모도에 있는 보문사에 도착했을 때는 제법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저마다 우산을 쓰고 일주문을 통과 절 언덕을 오르는 모습은 가을비와 낙엽이 우산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한 폭의 그림이다. 강화도 보문사는 양양 낙산사와 금산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화상 관음도량이라 한다. 보문사는 635년(선덕여왕 4년)에 화정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 나한전인 천연석굴 안에는 바다에서 어부들이 건져 올렸다는 불상과 나



한을 모셔놓았다고 해서 제일먼저 참배하려 했지만 초하룻날이라서인지 예불 드리는 사람들이 발디딜 틈을 주지 않아 끝자리에서 간신히 삼배만 하고 돌아와 아쉬웠지만, 천연석굴의 장엄함과 기도소리에 나도 덩달아 숙연해짐을 뒤로하고 보문사의 백미라고 생각되는 절 뒷편 절벽에 높이 32척, 너비 12척의 관음상인 마래석불좌상을 친견하러 급히 계단을 오르는 감회가 남다르다. 이십오년전에 철없이 왔던 곳이기도 하기에 여전히 안녕하신 마애불앞에 무릎이 젖거나 말거나 넘죽 엎드려 삼배 올리고 기념사진 찍고 보문사에서 정성스레 마련해준 점심공양을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나와 적석사로 향했다.

〈고려산 적석사비〉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입에 대항하여 강화에 도읍을 옮기고 있을 때 임금의 거처가 되기도 했단다. 적석사를 오르는 길은 큰 차가 오르지 못해 한참(30분)을 걸어올라 숨이 턱에 닿았지만 내려다보이는 경치는 땀을 식혀주고도 남을 만 했다. 관음굴 사십이수 부처님을 모신 곳으로 안내되어 주지스님(선암)의 법문을 청해 들었다. 스님께서는 방송국에도 출연하셔서 법문을 하시는 분이라고 옆에 앉은 보살이 귀뜸해 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첫 질문이 심상치 않았다. “수행에는 양무제식 수행과 달마대사식 수행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를 물으셨는데 나는 둘 다 모르니 듣고만 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달마대사식 수행불교는 지혜를 닦는 불교이고, 양무제식 불교는 복을 비는 불교란다. 지혜를 갖춘 근본이 복인데 여기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경기불교문화원 불자들도 과거 어느 생인가 양무제식 복을 지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하셨다. 이절 저절 찾아다니며 앓음앓이 하는 절도깨비가 되지말고 오계와 십계를 지키고 금상석과 같은 지혜를 얻으려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 열심히 복을 지으라고 하셨다. 똑같은 몸으로 복을 짓는 자와 까먹는 자가 있는데 복이 수승할 때 지혜를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의 실행방법이 복을 짓는 것인지 복을 감하는 것인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불자가 되라고 하셨다.

우리는 원장님의 죽비에 맞춰 백팔 배를 모두한 후 서해가 보이는 낙조가 아름다운 낙조대에서 기념촬영 찍하고 하산할 때는 비가 제법 옷이 젖을만큼 내려 발길을 재촉했다. 그래도 외포리 어시장에서 젓갈사고, 새우젓사고, 밥먹고, 진짜 푸짐하고 행복한 하루가 수원을 향해 마무리 되고 있었다. 무사히 동행하셔서 같이 기뻐했던 진철희 원장님과 답사반원 여러분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기 불교**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031)241-1004 / 원장실 (031)248-1616

수원시 팔달구 지동 427번지

어 / 학 / 강 / 좌

- 영 어 : 매주 수요일 오후2시 강사. 최영혜
- 중국어 : 매주 목요일 2시 30분 강사. 안미영
- 수강료 : 3개월 60,000원



11월 사찰답사기 [완주 화암사, 안심사, 청원 안심사]

포교사/본원 사찰답사반원/김영순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오랜만에 경기불교문화원 11월 답사에 동행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 소풍에 설레임처럼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 오르니 단출한 23명이 오늘에 도반들 이란다.

오늘 답사 할 곳은 완주 화암사와 안심사, 그리고 청원 안심사이다.

반가운 도반들과 그동안 만나지 못해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화암사에 도착 하였다.

3년 전에 다녀갔었지만 다시 가 보고 싶었던 화암사는 완주군 운주면 불명산 기슭에 있는 사찰 이다.

신라 694년(진성여왕3)에 일교국사가 창건하여 부분적인 중창을 거쳐 세종7년 해충스님이 중창 하였다.

불명산 원시림이 병풍처럼 둘러 있으며 원효스님, 의상대사가 수도 하였다고 설총이 공부하였다고 전해지며 금산사 말사이다.

고대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우화루(보물662호)는 지층에 기둥을 세워 외부와 통하게 하고 뒤쪽에는 축대에 맞추어 2층 마루바닥이 마당의 지반과 거의 같게 만들어 앞에서 보면 2층이지만 안에서는 단층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극락전(보물663호)은 1425년에 세워진 건물이다. 국내 유일의 하양식(처마를 들어 올리고 처마를 깊게 돌출시키기 위해 발달된 양식) 건축양식을 하고 있으며 정면3칸 측면3칸의 다포계 맞배집으로 잡석 기단위에 덩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민흘림 기둥을 세웠다. 화암사 방착 주지스님께서 화암사에 역사와 화암사에 하양식 건축양식이 학계에 보고되기 전에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전 해진 것으로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해 졌다는 자긍심이 대단 하였다.

요사채는 해체 복원 중 이었고 극락 바위에 올라 완주에 산야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덩으로 받고 완주 대둔산 안심사로 향했다. 안심사에 도착하니 겨울을 향해 달려가던 가을이 늦게 도착한 우리를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빨간 단풍과 노란 은행나무가 맞아 주는 안심사는 연화장 세계가 이곳에 있었다.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안심사는 신라 선덕여왕7년(638)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현강왕7년(875) 도선국사에 의해 중창 되었고, 신라말 조구화상, 고려를 거쳐 조선34년(1601) 수천화상이 네 번째 중창 했으며 숙종39년(1710) 신열 선백에 의해 다섯 번째 중창 되었다.

창건 설화는 자장율사가 삼칠일 기도를 하던 중 부처님이 나타나 열반성지 "안심 입명처"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다. 자장율사께서 기도 정진 중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고 '안심사'라 했다.

안심사 앞산은 부처님 열반상과 흡사하여 설화를 뒷받침하고 있고 이곳에는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고 적멸보궁과 대웅전이 불사 중 이다. 안심사 주지스님은 봉령사 승가대학 학장과 불교방송 신행상담, 동학사 주지를 지내신 일연스님이시다. 활동에 폭이 넓은 스님이시라 인연 따라 찾아오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수원에 인연이 있으신 스님께서 오늘 딴 홍시를 주셨다. 홍시를 받아들고 발걸음도 가볍게 청원 안심사를 향했다.

청원군 남이면 구룡산 안심사는 범주사 말사이다. 진표율사가 절을 지은 뒤 수십 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에서 '안심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여러 번에 중창을 하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일시 폐사되기도 했으나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법통을 이어왔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보물664호) 영산전, 충혼각등이 있다.

영산전 불단 앞에 있는 괘불함에는 1652년(효종3)에 제작한 괘불(국보297호)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나들이 가셨단다. 이 괘불은 "안심사 영산회 괘불탱화"로 일반적인 괘불 형식과는 다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후불탱화처럼 제작된 탱화는 충청지역의 불화연구에 도움을 주는 탱화이다. 이곳 청원 안심사에도 세존 사리탑이 모셔져 있는데 조선 말 탑에 행방이 묘연하던 차에 구룡산에서 발견되어 1881년(고종18)에 구천동으로 옮긴 뒤 1900년(광무4)에 다시 이곳으로 옮겨 왔다.

수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소 정체가 있었으나 버스에서 TV를 시청했다. KBS 도전 골든벨을 시청했는데 마지막 50번 문제가 불보,승보,범보 사찰을 맞추는 문제였다. 순천 중앙여고 학생이 마지막 50번 문제를 맞췄을때 우리는 환호 했고 불자로서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즐겁고 행복한 답사를 돌아오는 길 위에서 까지 맛본 하루였다.

성불 하십시오. 경기 불교



포교사 고시 특별강좌

- 개강일 : 12월 20일 개강 (매주 수요일 7시)
- 내 용 : 포교사 고시 총정리
- 강사 : 포교사 및 전문법사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사랑방

경기불교 문화원 소식

경불원 소식

● 백인에게들는다 (마흔두번째)

불기2550(2006)년 10월 21일 (토) 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성관스님의 "법구경"을 주제로 법회가 있었습니다.



● 백인에게들는다 (마흔세번째)

불기2550(2006)년 11월 18일(토) 오후 3시 본원 큰법당에서 정엄스님의 "기도하는 법"을 주제가 법회가 있었습니다.



● 10월 사찰순례 (강화 보문사, 적석사, 외포리 어시장)



10월 사찰답사는 강화 보문사, 적석사, 외포리 어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비내리는 산사의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고, 적석사

주지스님의 법문이 뜻깊은 답사였습니다.

● 10월 사찰순례 (완주 화암사, 완주 안심사, 청원안심사)

11월 사찰답사는 안주 화암사, 완주 안심사, 청원 안심사를 다녀왔습니다. 조출한 인원이 아쉽긴했지만 산사의 가을정취를 맘껏 느껴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답사였습니다.

● 가을 음악회 개최

불기 2550(2006)년 10월 21일(토) 오후 5시 본원 큰 법당에서 조출한 가을맞이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악가 김혜은, 불자가수 문명하, 고시아님, 반주자 이은숙님, 그리고 불자님들과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출연자분들과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규/강/좌

- **한복만들기 : 11월 10일 오후 7시 개강**
(강사 : 김혜경, 6개월 300,000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락 초급반 강좌 실시

2007년 1월 12일(금) 오후 7시 (강사 : 고철성) 경락 초급 과정 강화를 개강 할 예정 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경락의 기본원리부터 새롭게 시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행/상/담/실/시

본원에서는 나눔의 생활화의 일환으로 신행상담을 전문상담원을 모시고 실시합니다. 상담내용은 일반불교교리, 가정문제, 법률상담, 정신건강상담, 결혼 상담 등이며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 까지이며 이용전화는 031)251-1083 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불교상담개발원 (02)737-8803
- 한국여성불자연합회 행복한 가정상담소(02)738-558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02)2697-0155

교/계/소/식

▶ 시애틀미술관 영산회상도 '조선불화' 국내 전시

영취산에 올라 수백 명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설법하시는 석가모니부처님의 모습은 얼마나 장엄할까? 국립중앙박물관(02-2077-9000) 불교회화실이 공개한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 영산회상도(靈山會相圖)에서 그 장엄함을 엿볼 수 있다.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는 미국 시애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불화이다. (11월21일~2007년 1월 21일까지 전시예정)



▶ 한·중차문화교류대전2006

- 행사일시-2006.12.13-17일까지(5일간)
- 행사장소-서울 코엑스(COEX)

'중국차문화대전 2006'은 21세기 한류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되는 중국차문화축제이다. 한·중차문화교류대전은 중국과 국내 차 관련 단체 350여 곳이 참가해 유·무형의 차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 제12회 포교사 자격고시 시행 공고

1. 시행일시 : 불기2551(07)년2월11일(일)09:00- 12:00
2. 접수기간 : 불기2551(2007)년 1월15일(월)-18일(목)
3. 시험과목 : 1) 신도기본교육과정 교과목 및 불교일반
2) 신도전문교육과정 교과목
4. 기타문의사항 : 포교사시험 응시 예정자는 경기불교문화원에 서 특강예정이오니 연락바랍니다 (031) 251-1083

- 베스트 불서 10권 -

-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삶)
- 지금 후회없이 사랑하라 (성전, 도술)
- 여래 장심부경 (원경, 운주사)
-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삶)
-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아름미디어)
-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도)
- 바이로차나 (공파, 맑은소리, 맑은나라)
- 입보리행론 (산티에바, 하얀연꽃)
-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운주사)
- 깨달음으로 가는 길 (지운, 법공양)

2007년도 상반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2007년 1월 ~ 3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1/15개강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17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정엄스님	20명	16주 120,000원	천수경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12/21개강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노래교실	김혜은	20명	3개월 무료	찬불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법회후)	
	불교상담대학	스님및법사	40명	4주 50,000원	불교상담 전문인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 화 강 좌	요 가	이수현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1/3개강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1/16개강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10개강
	수지침	박민선	20명	3개월 90,000원	수지침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초급)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0분	수시
	영어회화	최영혜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주부반 수시
	경락	고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12개강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정무스님	100명	무료	잘먹고 잘사는길!	12월 16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지 부석사, 간월도	12월 17일 오전 7시30분 출발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익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